

BBS 스마트폰 웹페이지 최신버전 선보여

서용, 해암, 승산 스님들의 법문 다시 듣기도 가능

BBS불교방송(사장 이재원)은 창사 25주년을 맞아 불자들이 불교방송 TV와 라디오 프로그램 다시 보기와 듣기를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들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 웹페이지(m.bbbsi.co.kr)를 6월 1일 리뉴얼 오픈했다.



BBS불교방송이 창사 25주년을 맞아 TV·라디오 프로그램 다시 보기와 듣기를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들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 웹페이지(m.bbbsi.co.kr)를 6월 1일 리뉴얼 오픈했다.

기존 아이콘을 삭제하고 '안드로이드 폰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불교방송' 검색, 아이폰은 사파리 주소창에 m.bbbsi.co.kr를 입력하면 된다. 정혜숙 기자

새롭게 선보이는 스마트폰 웹페이지는 불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불교 소식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직관적인 메인화면으로 구성됐다. 또한 한눈에 들어오는 이미지 중심 메뉴와 연령대가 높은 불자들의 이용을 위해서 글자 크기도 최대화했다.

또한 불교방송은 25년간 불교방송을 사랑하고 아껴주신 불자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로 '옛날라디오 다시 듣기' 이벤트를 준비했다. △1996년 당시 'BBS 초대석'에서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조계종 제5대 종정 서용 스님 10편 △제 10대 종정 해암 스님 18편 △한국 불교를 세계에 널리 알린 승산 스님 15편 등 총 43편의 사자후를 스마트폰에서 생생하게 다시 만날 수 있다.

새로운 스마트폰 웹페이지 접속 방법은

제주불교, 제1회 신행수기 공모

20일까지 접수... 상금 200만원

제주불교신문이 기도와 수행으로 아픔을 치유한 불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다린다.

신행수기 공모는 전국 모든 불자를 대상으로 한다.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20매 안팎으로 글씨크기 12포인트, A4용지 4장 기준이다. 접수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전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7월 13일 시상식을 진행한다.

총 상금은 500만원으로 △대상(1명) 200만원 △최우수상(2명) 각 100만원 △佳作(5명) 20만원 상당 상품권이 각각 수여된다. 특히 대상 수상자에게는 제주불교신문협회 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한편 이번 신행수기공모는 제주불교신문과 함께 불려관선양회가 공동주최, 제주불교신문협회가 주관하며 제주불교연합회가 후원한다. 우편 또는 이메일(jejubulgyo@hanmail.net)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우편접수 690-829 제주도 제주시 중앙로 11길 1, 3층. 문의 (064)755-2203. 박아름 기자

조계종 전법중심도량 모집 포교원 6월22일까지 접수

조계종 포교원이 종단차원의 포교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전법중심도량'을 모집한다. 전법중심도량은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새터민 △이주민 등의 분야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계종 사찰이면 신청가능하다. 신성민 기자

전법중심도량 지정 사찰에는 종단에서 개발한 각종 교구재 및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지원받고, 사찰과 연계한 종단 사업 시 우선 선정 및 예산 지원의 특권을 받는다.

희망 사찰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오는 22일까지 포교원 전법지원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신성민 기자

세계 7대 명상 지도자 한자리에



세계 명상대전 7월 18일부터 정선 하이리조트서

세계 각국의 명상가들이 한자리에 만나는 특별한 명상힐링캠프가 펼쳐진다. '세계 7대 명상 지도자 1000명의 스님'이 함께하는 세계명상대전 (조직위원장 각산, 참불선원장)이 7월 18일부터 강원도 정선 하이리조트와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 등에서 열린다. 이에 세계명상대전 조직위는 6월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명상힐링캠프, 성자 수계 대법회, 강연 등으로 이어지는 일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사를 겸한 중국 최고의 선승인 소운대종사, 서양 최초의 티베트 고승인 톨텐가초 스님, 대만의 세계통합불교운동의 선구자 심도선사, 미얀마 최대의 수행센터인 마하시 명상센터의 최고 명상스승인 우 자필라 사야도 스님,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 선승인 해국 스님이 참여한다.

태국 아라한 아잔간하 스님 등 명상 힐링캠프·수계법회 진행 부산·대구 등서 강원도 개최

특히 아잔간하 스님은 태국의 아라한으로서 45년 동안 신문 TV 등의 언론은 전혀 접해보지 못한 전설적 숲속의 은둔수행자다. 세계명상계의 최고봉이었던 아잔 차의 직계제자이면서 조카이기도 하다.

중국을 대표하는 간화선의 대가 소운대종사는 근대 중국 선불교의 중흥자인 허운대사의 10대 제자로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존경과 예우를 갖추고 친견한 선사다. 대만을 대표하는 심도 선사는 간화선과 함께

위빠사나를 함께 지도하는 세계통합불교의 선구자로 50만 명의 재가 제자와 수행명의 출가제자를 세계불교박물관을 운영하며 매년 7만 명이 참여하는 수륙제를 개최하고 있다.

7월 18일~25일 강원도 하이리조트에서 진행되는 '명상힐링캠프'는 7대 성자들의 법문과 견기명상 좌선 등이 펼쳐진다. 조직위원으로 참여하는 인경 스님(한국명상심리학회)은 "현대사회를 하이테크 시대라고 한다. 개인이 소외되고 메탈라가는 요즘 하이테크 즉 정서적 감동이 필요한데 명상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행사는 현대 불교를 새롭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각각 다른 수행체계를 가진 각국의 대표 수행자들이 한자리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7월 25일에는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세계 7대 성자 수계법회가 이어지며, 7월 26일 부산과 7월 27일 대구에서도 강연회가 열린다.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힐링서울! 세계7대성자 명상토론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전 신청자들은 7명의 성자들에게 수계를 받을 수 있다. (www.worldmeditation.or.kr) (02)451-0203 정혜숙 기자

진홍원 화요열린 강좌에 신준환 교수 초청

'나무 통해 세상을 보다'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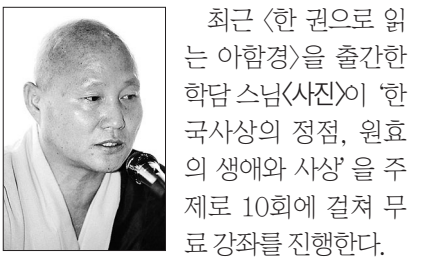
재)대한불교진홍원이 신준환 동양대 교수(前국립수목원장)를 초청 6월 16일 오후 7시 마포도보빌딩에서 6월 화요일 강좌를 진행한다.

"나무를 통해 세상을 보다-미래를 열어줄 지혜의 원천, 나무의 모든 것"을 주제로 하는 이번 강좌에서는 △나무의 인생학 △나무의 사회학 △나무의 생명학 등에 관한 내용이 강연으로 펼쳐진다.

신준환 교수는 서울대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국립산림과학원의 임업연구사를 시작으로 2014년 국립수목원 원장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공직에 몸 담았으며 현재는 동양대에서 산림비즈니스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지금까지 생물다양성, 장기생태, 전통산림지식 연구에 매진해왔으며, 1992년부터 2000년대까지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관련 국제회의에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 참가했다. 저서로는 <자연의 향기 속으로>(공저), <한국의 전통생태학>(공저) 등이 있다. (02)719-2606 신성민 기자

학담 스님, 원효사상서 현대 해법 찾는다

'원효의 생애와 사상' 강좌



강좌는 6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경기도 파주출판단지 내 한길사 사옥에서 열린다. 1~3강은 원효의 생애, 4~5강은 원효불교에서 화쟁과 회통, 6~8강은 원효불교에서 참회정신과 실천윤리, 9~10강은 오늘의 역사와 원효 불교를 주제로 진행된다.

강좌를 기획한 한길사는 취지문을 통해 "원효는 회통(會通)의 정신으로 투쟁과 갈등의 역사를 비판하여 아무도 빼앗기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통탄의 세계를 건설하고자 했다"면서 "오늘날 분단의 역사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광란의 현실 속에서도 원효불교 그 화쟁과 회통의 정신이 역사의 새벽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신청은 한길사 홈페이지(www.hangilsa.com)나 전화로 가능하다. 031-955-2008 신성민 기자

카톡에서 동자승 이모티콘을 만나다

조계종 포교원, '반야의 야단법석' 출시

불교 최초 이모티콘 주목

익살스러운 동자승과 절냥이(절고양이)를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지난 부처님오신날인 5월 25일을 전후로 카카오톡에 동자승 이모티콘 '반야의 야단법석(이하 반야)'을 출시했다.

불교 최초 이모티콘인 '반야'는 사랑스러운 24종의 동자승 캐릭터와 절냥이를 담은 있다. 총24종으로 구성된 이모티콘에는 10~30대의 취향을 반영해 귀엽고 유머스럽게 꾸며졌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캐릭터 개발을 대학생 그룹인 극동대 미디어 콘텐츠와 권주미 씨 등 9명으로 구성된 'TEAM_BANYA'가 만들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출시를 기념해 6월 중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벤트 공지는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포교원은 "반야의 귀엽고 친근한 이모티콘은 어린이, 청소년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대중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불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야'는 사랑스러운 24종의 동자승 캐릭터와 절냥이를 담은 있다. 총24종으로 10~30대의 취향을 반영해 귀엽고 유머스럽게 꾸며졌다.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유사 포교당(포교원)의 상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근래 특정 사찰의 포교당(포교원)을 빙자하여 천도재 및 위패, 수의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많아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종단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불자들을 기망하는 행위가 빈번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상적인 포교당(포교원)은 불자들이 여법하게 수행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천도재 및 위패 등을 상품처럼 판매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사 포교당(포교원) 사례를 참조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 노인을 위주로 방문을 유도하며 생필품 등의 선물을 무료로 나눠주는 포교당
- 단기간(수개월)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되는 포교당
- 법회, 예불 등의 기본적인 의식 없이 노래, 만담 등의 유희 위주로 운영되는 포교당
- 법문 시 지나치게 영가천도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포교당
- 스님 없이 운영되거나 재가자가 점장, 부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는 포교당
- 과도한 천도재 및 위패, 수의 비용을 요구하거나 할부 등 분납을 강조하는 포교당
- 천도재나 위패, 수의에 대하여 가족과 상의를 하지 못하게 하는 포교당

※종단 소속 승려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포교당의 경우 종단의 조사나 행정지도가 불가합니다. 유사 포교당의 상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단 소속 여부에 대한 문의는 총무원 총무부나 호법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세 영